

# 전남교육 '중등 2030교실' 확산 시동

전남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선도할 혁신적 수업 모델인 '2030교실' 활성화를 위해 '중등 2030 수업 연구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업 연구회는 2030교실 구축과 혁신적인 수업 모델을 연구하는 단계로, 현재 29팀 159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2030교실 수업 공모에 선정된 교사들을 중심으로 각 소속 학교에서 교내 수업 나눔을 통해 2030교실 수업을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탬 예정이다.

올해 중등 2030교실에서는 학생 주도적 학습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펼쳐진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토론을 진행하고

수업 연구회에 교사 159명 참여...운영 방향 등 논의  
생성형 AI 활용 토론 등 학생 주도적 수업 설계 주력

과학 실험 데이터를 시각화 도구로 분석하며 학습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수학, 과학, 사회 등 여러 교과를 융합한 학습도 이뤄진다. 이러한 수업은 협업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며 글로벌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교류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 2030수업 연구회는 최근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연찬회를 열

고 2025년 연구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연찬회에서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의 글로벌 중등 미래교실에 참여했던 수업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수업 설계와 연구회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등 가정교과팀은 이날 '에듀테크를 활용한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 주거 디자인'이라는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해 6개 학교에서 진행된 공동

수업 사례를 소개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연구회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구체적인 수업 설계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또 2030수업 연구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당시 운영된 23개의 미래교실수업연구회를 멘토로 지정, 1대1 매칭을 통해 운영 지원과 조언을 제공한다. 이들 멘토단은 이달 말까지 연구회 운영 계획과 수업 계획을 작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앞으로 학교 간 교류 수업, 국제교류 수업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학기에는 본격적인 수업 나눔을 실천하는 것과 함께 2030



수업 축제'에 참여해 더욱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30교실 구축뿐 아니라 2030교실의 방향성을 담은 수업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지현 중등교육과장은 "2030 수업

연구회 교사들이 미래를 대비한 수업 혁신 활동을 이미 시작했다. 이를 통해 도내 중등 교실이 미래 교육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이 연구와 실천, 확산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대기자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광주시교육청 제공>

## 순천교육지원청, 초·중학생 '겨울방학 대학생 튜터링' 운영

순천대 사범대 학생 1대1 매칭...기초학력 향상 등

전남도순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순천대학교 사범대학과 연계해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대학생 튜터링'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생 튜터링은 순천대 사범대학 예비교사 대학생 튜터(47명)와 관내 초·중학생 튜티 140명을 매칭, 학습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방학 기간 동안 학습을 지원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

하고자 마련됐다.

튜터와 튜티를 1대1에서 1대5로 매칭해 보충 희망 과목을 10일 동안(1일 4시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등 상담 활동을 병행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 와자야 존중감을 높이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순천왕의중 학생은 "방학에 학교에 나오는 것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학기 중에 부족했던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충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학생 형에게 공부하는 물론, 학습 방법,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을 얘기할 수 있어 매우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동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대학생 튜터링을 여러 해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대학교 및 유관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기자

## '유보통합 대비'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 키운다

시교육청, 300여명 대상 연수...초등 연계 '이음교육' 전략 등 소개

광주시교육청이 유보통합에 대비해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유보통합에 대비한 시범교육청 특성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연수에 앞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연수는 김경란 광주여대 교수의 '유아발달 특성에 따른 교사' 역할 강의, 이경학 중흥초등학교 교감의 '영아·유아 초등연계 이음교육' 안내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경학 교감은 올해 유보통합에 맞

춰 유치원에서 시범 운영된 '이음교육'이 어린이집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보통합을 대비하는 이음교육 실천 전략'을 소개했다.

이음교육은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현재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김대기자

## 광주대-국제직업전문학교 인재 양성 '맞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업무협약 지역 청년 취업·커리어 개발 협력

광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국제직업전문학교(학교장 조승란)와 미래인재 양성교 교육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직업전문학교는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IT, 디자인 등 다



방면의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

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직업전문학교의 직업훈련 전문성과 광주대학교의 진로·취업 지원 역량을 결합해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커리어 개발을 돕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신준우(회계세무학과 교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국제직업전문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와 실질적인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